지역문화의 해에 되돌아본 지역미술

고 충 환 | 미술평론가

비엔날레 사태라고 명명할만한 현재 상황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비엔날레에 끼지 못한 작가는 작가도 아니다라는 다분히 자조 섞인 말이 흘러나오게 한다. 작가는 물론 큐레이터나 현장 비평가 역시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외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작가들이 비엔날레의 최소한의 끝자락마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칫 남의 동네 불 구경하듯 하는 소외나 냉소, 나아가 이질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지역문화의 의의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역이 갖는 의미가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했던 편향된 구도가 자기 외부에 대해 상당한 자리(기회)를 할애하면서 일정한 평준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특히 지역문화와 관련해서는 더 그렇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동안 상당한 문화적 평준화를 실현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역민의 입장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지역민의 입장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지역민의 입장이야말로 다름 아닌 지역문화나 지역미술의 주체와 자기정체성과 관련되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적지 않은 지역문화 논의에서는 문화의 향수적 측면에만 연연해 왔을 뿐 정작 중요한 주체적 측면을 소홀히 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적 우열론이 만들어 낸 메울 수 없는 거리를 재삼 확인시켜줄 따름이다. 대신 주체로서의 인식을 전제한 지역문화 논의는 사실 지역문화의 자치와 직결된 문제로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행해졌던 중심과 지역과의 이분법적 구도를 전제한, 더러는 우열론에 편승한 지역문화 논의와는 거리가 있다. 한마디로 어떠한 형식으로든 자치를 결여한 모든 지역문화 논의는 그 자체로서 일정한 한계를 갖기 마련이며, 나아가 억압적이기조차 하다.

참고로, 지역문화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 지역민에 의해 습득된 지식, 관습, 예술, 신앙, 윤리도덕 등 특히 정신적인 가치관의 총체를 말하며, 흔히 전통으로 알려져 있다. 부연하면 특정 지역의 역사적 공동 경험과 문화의 동질성, 그리고 지역민의 공동체 의식을 아우르는 총체적 개념인 것이다(2001 지역문화의 해 지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슬로건으로 내건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렇다고 지

역문화가 전통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처럼 그 자체 굳어있는, 부동의 틀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를테면 그 자체가 고정불변의 개념이기보다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서 마치 유기체와도 같은 동적 개념이며, 더욱이 주체의 인식에 의존하는 상대적 가치의 가변적 개념이기도 한 것이다.

덧붙이자면, 모든 지역문화의 논의는 행정 개념인 지방이 아닌 지역의 인식에 기초해야 한다. 지방이 중심에 대한 상대적 개념인데 반해, 모든 지역 논의에서 중심은 그 자체가 지역인 것이다. 이로써 서울을 포함한 지역 대 지역 간의 대등한 관계로서의 논의의 근거가 마련된 셈이며,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의 문화적 인식의 전환이 가능할 뿐더러 근자에 회자되고 있는 타자의 논리에 기초한 다원주의 혹은 다문화주의적 전망마저 포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2001, 지역문화의 해』 지정이 갖는 의미

문화관광부는 2001년을 지역문화의 해로 지정 발표했다(2000.8.18). 그동안 문화관광부는 1991년 연극영화의 해를 시작으로 만 11년째에 이르는 동안 1998년 『사진 영상의 해』, 1999년 『건축의 해』, 2000년 『새로운 예술의 해』 등 각종 문화예술의 당해년도 관련 사업을 지정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올해 문화예산 1조404억원 중 문화 향수권 확대에 200억원, 지역문화활동 강화와 전통문화 보존에 166억원, 지역 박물관 등 문화시설 건립에 491억원을 배정하는 등 지역문화 활성화에 전에 없던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2001 지역미술의 해 추진위원회 역시 '사람' '삶터' '어울림'을 주제로 한 공동체 문화의 실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각종 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하드웨어 및 예산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동안의 지역문화 지원사업의 형태에서 탈피하여 지역문화의 기획력과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였으며, 그럼으로써 지역문화의 자생력 곧 인프라 구축을 겨냥한 점이 특징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지역문화의 자생력 강화를 염두에 둔 명분도 그 이면에서 주체와 자치의 실현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종전의 경우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화의 생산자와 향수자를, 기획력의 주체와 객체를, 관련 지식과 정보의 생산자와 수혜자를 나누는 이분법적 구분에 기초한 우열론의 틀을 극복해야 한다. 이는 한마디로 계몽이라는 특정의 성격을 전제하고 있는데, 과연 아직도 계몽이 필요한지 자문해 볼 일이다. 오히려 일방통행식의 계몽보다는 각 지역이 갖는 지역성 곧 특수성에 기초한 통합적인 쌍방통행식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에 총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민의 입장에서 이런 자기 외부로부터의 지원에 대해 반드시 배타적일 필요도, 외부의 입장에서 그 배타성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 흔히 자기 외부로부터의 지원에 대해 반응하는 지역민의 배타성이나 폐쇄성은 그 자체로 자기의 순수 곧 자기정체성을 보전하기 위한 예도 있지만, 자신의 기존 입지 곧 헤게모니의 문제와 맞물리는 경우 역시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소프트웨어 지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방문화원이나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등 유형적인 자산을 지원하는 일이다. 나아가 문화예술재단의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재정적인 면에서도 자생력을 갖추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교적 근래에 설립된 경기문화재단이 그 적절한 예가 될 것이다.

그런가하면 흔히 거창한 구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적은 거대담론에 연연해하기보다는 작지만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사안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요컨대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는 지역 도서관의 건립과 재정 지원, 그리고 문예진흥원이 주축이 된 지방의 폐교를 이용한 미술 창작공간 지원사업이 그렇다. 실제로 지방의 폐교를 이용한 창작공간의 지원사업은 지난 1997년부터 추진된 이래로 현재 충남 논산과 인천 강화 미술창작실 등 상당한 실현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작가 선정상의 객관성 문제와 사후관리 등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요청된다.

특히 지역 도서관의 건립과 관련해서 여타의 분야는 물론이고 미술과 관련한 이미지 정보들이 아직도 상당할 정도로, 아니 거의 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된 형식 곧 책자 형식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그것이 가져올 이익은 생각보다 크다. 여기서 데이터베이스화된 책자 형식은 인쇄 매체, 비디오의 동영상 매체, 오디오의 소리 매체, 컴퓨터의 CD-Rom, 그리고 슬라이드 관련 자료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근래의 일부 첨단 도서관에서 그 예를 접을 수 있다.

이런 유형 자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야말로 일과성의 행사에 적지 않은 낭비와 한탕주의식의 행사가 은폐하고 있기 마련인 정치적인 지향성과 관련한 의구심과 잡음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위 눈먼 돈을 조성하기 위한 구실로써 행사를 고안해낸다는 혐의와 오해를 불식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미술관련 행사의 재정적 규모가 전에 없이 커진 현실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돈의 쓰임새가 투명할 수밖에 없는 유형 자산에 대한 지원이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아직도 적지 않은 미술관련 행사들에서 자기 외부를 의식한 전시 행정의 혐의가 발견된다. 적어도 이제는 자기 외부를 의식하지 않는 내실의 구축에 눈을 돌릴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외형적인 행사 역시 자기 내적인 인프라의 구축에 기여하는 바가 없지 않지만, 언제까지고 인프라 구축을 운운하며 자기 논리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한마디로 유형 자산에 대한 돈의 투명한 쓰임새는 이렇듯 자기 외부를 의식하지 않는 자신감의 회복 곧 자기정체성의 확립 없이는 그 실현을 보기 어렵다.

그런가하면, 미술저널 곧 매체의 중앙집중화 현상,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저널의 확보와 이에 따른 비평구조의 활성화 문제 역시 심각하게 재고해보아야 한다. 여기서 미술저널이란 팜플렛,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의 형태로 발행되는 정기 부정기 간행물, 전문 미술지, 문예지와 사보의 미술관련 지면, 각종 예술문화단체에서 발행되는 기관지를 포괄한다. 그리고 예총과 미협, 민예총과 민미협의 단체들이 이해 관계를 떠나 일의 성격에 따라서 의기 투합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역의 주요 전시들

문화관광부 관련 사이트 집계 자료에 의하면, 2001년 현재 전국에 총 412개에 달하는 지역축제가 있으며, 이 가운데 종합 축제가 202개, 순수 예술 관련 축제가 58개이다. 그 중 거의 절반에 달하는 종합 축제는 최소한 그 성격이나 개념이 불투명한 경우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가하면, 적지 않은 미술관련 행사 중 자의든 타의든 국제적인 규모와 그 성격을 획득한 경우로는 대략 『미디어시티

서울』『광주비엔날레』『부산비엔날레』『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정도를 들 수 있다.

2000년에 처음 개최된 『미디어시티서울』(2000.9.2 10.31)은 동영상 미디어를 비롯한 첨단 매체를 겨냥한 점이 특징이며, 2002년 상암동 전시를 앞두고 있어서 사실상 비엔날레의 형식을 띤다. 또한 1995년 처음 개최된 『광주비엔날레』는 2002년의 제4회 행사(2002.3.29 6.29)를 앞두고 있으며, 국내에 상존하는 각종 비엔날레 전시 행태의 사실상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리고 얼마 전 원래의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을 개칭한 『부산비엔날레』는 ' 국제바다미술제 ' ' 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 ' ' 국제현대미술전 '의 세 전시를 축으로 하며, 2002년 9월 행사를 앞두고 있다. 그런가하면, 1999년 처음 개최된 이후 2001년 현재 제2회에 이른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의 올해 전시(2001.10)는 자연의 숨결을 주제로 선정했다.

이 외에도 올해 처음으로 비엔날레 형식을 도입한 『제1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 경기도 ' 행사의 부속 전시)와 독일의 조각도시 뮌스터를 염두에 둔 울산의 『국제철조각페스티벌』이 주목된다.

『세계도자기 엑스포 2001 경기도』(2001.8.10 10.28)는 ' 흙으로 빚는 미래 '로 주제를 정하고, ' 80일간의 세계도자여행 '으로 부제를 삼았다. 경기도의 이천과 여주, 그리고 광주 일대를 거점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 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 ' 세계현대도자전 " 세계도자문명전 " 동북아교류전 ' 등 12건에 달하는 전시를 축으로 한다. 특기할 점은 세계도자기엑스포와 연계하여 주 행사로 기획된 『제1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를 『광주비엔날레』와 『부산비엔날레』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제적인 미술관련 행사로 자리잡게 할 계획이다. 그리고 『세계도자 문명전』에서는 중국 북경 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내에는 처음 소개되는 국보급 유물을 포함한 70여점이 출품작에 포함될 예정이다. 책정예산 1천216억(미술관련 행사상 최대 규모) 가운데 적지 않은 금액이 작품 대여와 보험료로 책정되었다는 후문이 있기도 하다. 부대 행사로 예정된 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입상작은 비엔날레 기간 동안 이천 세계도예센터에, 그리고 청년작가 야외조각 공모전 입상작은 2001년 8월 공개할 예정인 경기도 광주군 곤지암 소재 조각공원에 각각 설치 전시할 예정이다.

비엔날레 사태라고 명명할만한 이런 현재 상황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비엔날레에 끼지 못한 작가는 작가도 아니다라는 다분히 자조 섞인 말이 흘러나오게 한다. 작가는 물론 큐레이터나 현장 비평가 역시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외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작가들이 비엔날레의 최소한의 끝자락마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칫 남의 동네 불 구경하듯 하는 소외나 냉소, 나아가 이질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비엔날레만이 능사는 아니다. 『인천포스터 2001』(2001.6, 인천종합문화 예술회관) 『2001 바깥미술 - 대성리전』(1980년부터 매년 겨울 북한강변 대성리에서 개최해 온 이후 올해로 21년째를 맞는 이번 전시는 올해의 주제를 땅의 힘, 바람의 힘으로 삼았다) 『영암 구림마을 프로젝트』 『탄광촌 미술관』(2000.8, 21C 청년작가회 주최) 등 틈새를 겨냥한 전시 행태에서 주체와 자치의 실현에 기반을 둔 진정한 지역문화의, 지역미술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